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백 탄광 이야기

태백아, 반가워! 석탄아, 고마워!

김미경 글 | 이창섭 그림



국립공원 | 태백산
KOREA NATIONAL PARK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백 탄광 이야기!



차례



옛날 옛적 태백은요~ 4

수억 년 전 태백이 바다였다고? 6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는 어디? 11
생각 놀이터 1 색칠하며 느끼는 신비한 고생대 체험 16
생각 놀이터 2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 태백' 알리기 힙합 오디션 17



광부 할아버지의 특별한 보물 네 가지 18

할아버지의 수상한 팔 20
파란색 보자기에 싼 도시락 25
쥐는 할아버지의 수호천사 28
할아버지를 찾아라! 32
검은 하늘과 검은 시냇물 36
생각 놀이터 1 색칠하며 체험하는 탄광소 갱도 40
생각 놀이터 2 함께해요! 요리조리 탄광 낱말 퍼즐 41





우리 할머니는 검은 장미 42

할머니 별명은 '검은 장미' 44
눈만 빼고 완전 무장하라 48
선탄부가 없다면 석탄도 없다! 51
생각 놀이터 1 친구와 함께! 선탄부 할머니 깜짝 인터뷰 54
생각 놀이터 2 선탄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55



태백아, 반가워! 석탄아, 고마워! 56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과 태백시 58
춘천엔 닭갈비, 태백엔 물닭갈비 64
울창한 숲이 탄광소 덕분이라고? 66
생각 놀이터 1 10년 뒤 개봉할 타임캡슐! '태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 70
생각 놀이터 2 10년 뒤 태백은 어떤 모습일까요? 71

| 부록 | 광부 할아버지, 선탄부 할머니! 감사합니다! 73



우아~! 우리가 몰랐던 태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술술술~



옛날옛적 태백은요~



태백에서 나고 자란 혜수는 지금까지 몰랐던 태백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태백이라는 것을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옛적의 태백으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수억 년 전 태백이 바다였다고?





토요일 아침, 혜수는 마음이 바빴어요. 아빠와 함께 태백 구문소에 가기로 했거든요. 드라이브도 하고, 구문소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기로 했답니다. 구문소에 도착한 혜수는 구문소 안쪽 바위에 새겨진 '오복동천 자개문(五福洞天 子開門)'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기 구문소의 바위 문은 자시(밤 11시~오전 1시)에 열리는데, 그 시간에 이 바위 문을 지나면 사계절 꽃이 피고, 풍년이 들며, 좋은 일만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곳이 바로 여기 태백이고요."

"어이쿠, 우리 혜수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지?"

"어젯밤에 공부 좀 했죠. 아빠한테 뽐내려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 작은 물길이 우람한 암벽을 뚫어 산을 가로지른 구문소 입구 모습

"그랬구나! 맞아, 구문소는 '구멍이 뚫려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야. 저기 바위산에 뚫려 있는 큰 구멍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지? 황지천과 철암천의 물길이 큰 산을 뚫고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곳이란다."

아빠는 구문소를 포함해 우리가 살고 있는 태백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질 변화 과정과 자연환경, 생물의 역사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래요.

한반도는 고생대•에 바닷속 땅이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의 신비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태백이라고 해요. 구문소와 황지천변 등 태백 지역에서

TIP

고생대• 지금부터 약 5억 7,000만 년 전부터 2억 5,000만 년 전까지의 시기


고생대
무럭
무
럭
무럭
육지가 생겼네~
뿌리가 약해~
현재
쿵 쾅~


땅은 밟아야 제맛!
쿵
쿵
쿵
쿵
쿵
압력
열
오랜 세월에 걸쳐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이 됨
근대
석탄 발견!
쿵! 콰!
쿵 ~ 콰 ~
쿵 콰 ~
1980~90년대 태백



절지동물(몸의 마디가 나뉜 동물) 중 가장 먼저 지구상에 나타난 삼엽충

는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이나 두족류, 완족류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옛날 옛적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걸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아빠! 그럼, 저기 구문소의 기묘하게 생긴 커다란 구멍과 암벽이 모두 오랜 세월에 걸쳐 강물에 깎여서 생긴 거예요?"

"그렇지. 강물이 우람한 석회 암벽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흘러가는 거야. 산을 가로지르는 강이지.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 걸작이면서 옛날 옛적 고생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단다."



신비한 고생대의 비밀이 그대로, 구문소



강원도 태백시 남쪽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산을 뚫고 가로지르는 물길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고생대의 자연환경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석과 퇴적 구조가 보존되어 있어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되었답니다.



구문소 주변에는 구문 8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요. 삼형제폭포, 마당소, 자개루, 여울목, 통소, 용소, 용천, 닭벼슬바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랍니다.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는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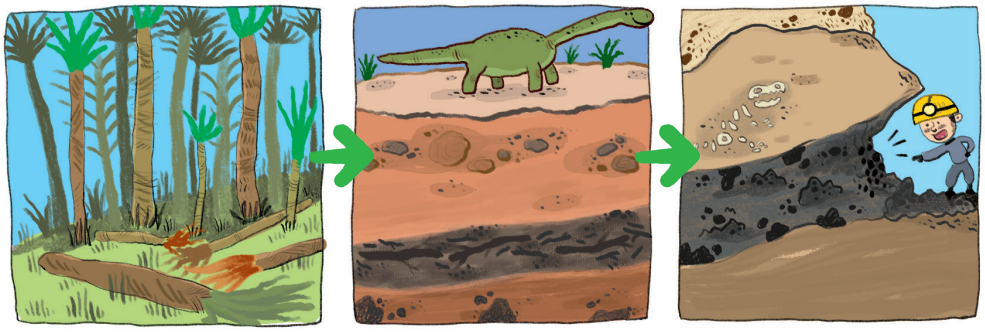




혜수는 태백이 고생대 지층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는 아빠 말씀에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우리나라 지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석탄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였다가 후기 고생대에 육지로 바뀌면서 석송류, 쇠뜨기류, 칼라미테스 등의 식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후기 고생대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대형 초식동물이 진화하기 전이라 천적도 없어 육상식물이 울창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3억 5,000만 년 전의 후기 고생대 육상식물은 뿌리가 약해서 무더기로 뿌리가 뽑혀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무를 썩힐 미생물이 없었던 때라 죽은 나무들이 쌓이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된 것이 바로 석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식물이 땅속에 묻혀 계속 쌓인 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이 만들어졌다.

탄이란다."

태백이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였다는 아빠 말씀을 듣고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태백이 탄광촌이었다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탄광 도시였다고요?"

"그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석탄 사용량의 3분의 1을 태백에서 공급했단다. 석탄 매장량이 그만큼 많은 곳이지. 1950년대 태백 지역에 등록된 탄광소만도 100곳이 넘었다니 어마어마하지. 너, 태백시에 기차역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니?"

혜수는 아빠의 질문에 의아했어요. 탄광소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기차역이라니요.

"석탄을 캐서 대도시로 실어 나르려면 철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



지만 석탄 생산량이 많았던 태백 지역을 중심으로 1975년에 태백선을 개통했단다. 탄광소가 몰려 있는 철암, 통리 등에 기차역을 잇달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지."

"석유나 가스가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석탄이 국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서 그런 거죠?"



TIP

승격 지위나 등급 따위가 오름 또는 지위나 등급 따위를 올림

"그렇지, 우리 혜수 똑똑하네. 그때는 석탄 산업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었단다.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는 탄광소에 취직하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태백으로 몰려들었대. 그래서 원래 삼척군에 속해 있던 황지읍과 장성읍을 분리해서 1981년 태백시로 승격시킨 거란다."

"석탄과 탄광소 덕분에 태백이 크게 성장한 거네요."





석탄은 뭐고 연탄은 뭐지?

석탄은 아주 오래전 물속의 식물이나 땅 위의 식물이 땅속에 묻혀 계속 쌓인 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타기 쉬운 흑갈색 암석이에요. 석탄을 가공해서 연탄이나 갈탄 등을 만드는 거고요. 석탄이 연탄의 원료인 거죠.


▲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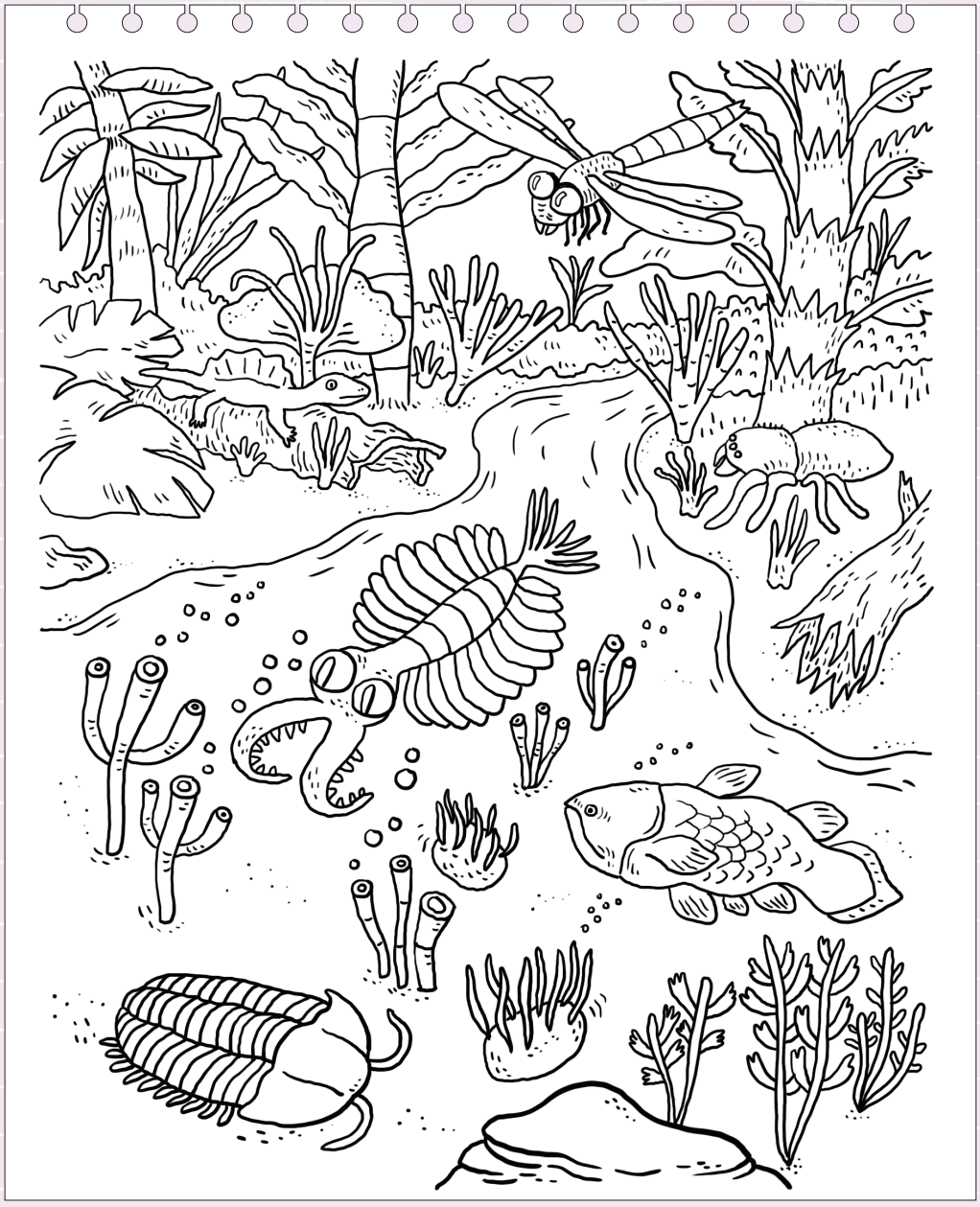
석탄은 누가 발견했을까?

우리나라 석탄에 대한 첫 기록은《삼국사기》에 나와요. 진평왕 31년(609년) 모지악이라는 곳에서 동토함 산지가 불에 탔다고 쓰여 있는데, 모지악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일군의 갈탄 지역으로 추정한답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말, 당시 태백 주민이던 장해룡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어요. 이후 1936년에 일본의 지질학자인 시라키 다쿠지가 태백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때부터 석탄 개발이 시작됐어요.

생각 놀이터 1

색칠하며 느끼는 신비한 고생대 체험

수억 년 전 신비한 고생대 모습을 상상해서 완성해 보세요.



생각 놀이터 2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 태백' 알리기 힙합 오디션

1980년대까지 태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석탄 생산지이자 탄광 도시였다는 걸 힙합으로 널리 알리고 싶어요. 라임을 넣어 멋진 랩 가사를 만들어 보세요.





할아버지의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보물은 뭘까?

• 두 번째 이야기 •

광부 할아버지의 특별한 보물 네 가지



드디어 민호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태백에서 20년 동안
광부로 일했던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네 가지 있대요.
지금부터 민호와 함께 할아버지의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보물을
찾아나서 볼까요?

할아버지의 수상한 팔



"할아버지 팔에는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민호는 검은 점투성이인 할아버지 팔을 만지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점이 아니라 석탄가루가 박힌 거야. 석탄을 캐다 보면 얼굴이나 팔, 다리에 부서진 작은 석탄 알갱이들이 박히는 일이 많거든. 병원에 간다는 건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니,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버린 거란다. 할아버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광의 상처지."

민호도 압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태백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런데 막상 작은 석탄 알갱이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할아버지 팔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석탄은 땅속 깊숙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수백 미터 파고 들어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한 뒤

갱도•를 만들고 석탄 캐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석탄을 캐면서 큰 암석이 나타나면 또 폭파하고 다시 석탄을 캐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석탄 알갱이가 몸에 박히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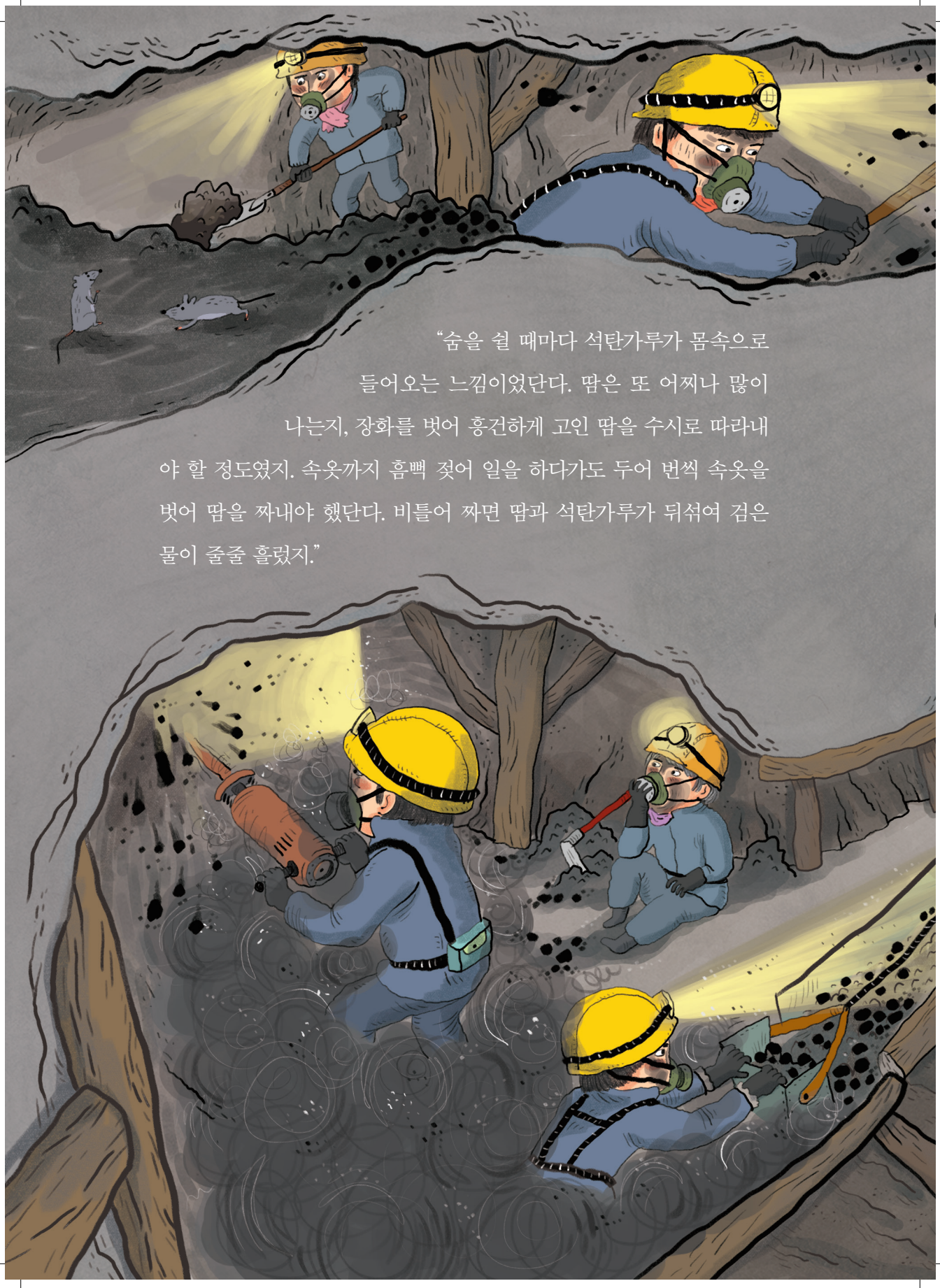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왜 석탄 알갱이를 피하지 못했어요?"

"갱 안은 앞이 안 보일 만큼 컴컴하고 석탄가루가 자욱하지. 게다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천장이 낮기 때문에 알갱이들이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몰라서도 못 피하는 거지. 그때는 안전 장비도 거의 없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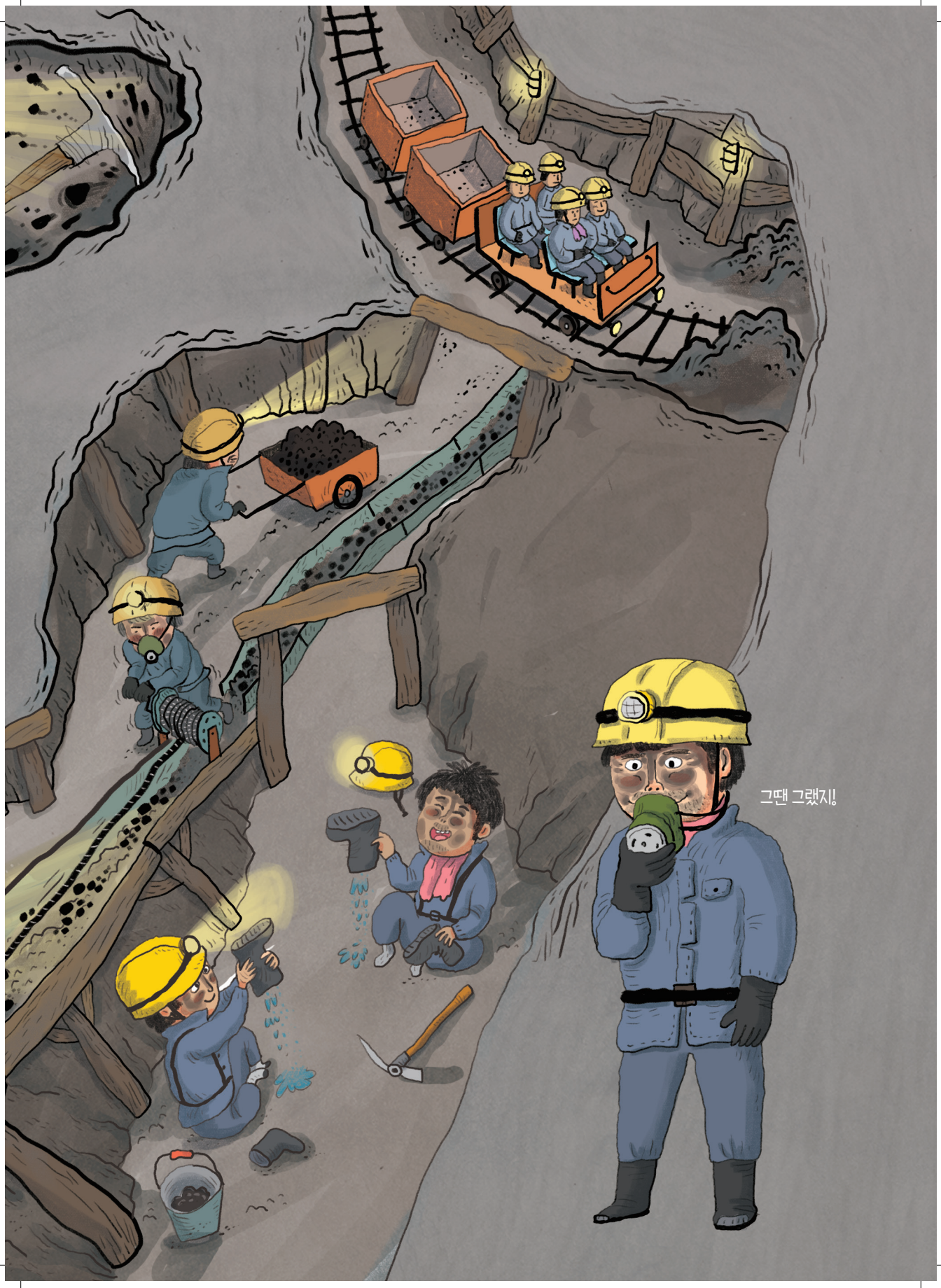
모자에 달린 흐릿한 안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석탄을 캤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믿기 힘든 건 갱 안 작업 환경이었어요. 갱 안은 땅에서 열이 나고 습도가 높다고 해요. 온도가 무려 35도나 되고, 습도도 90퍼센트가 넘어 한여름보다 더 더웠대요.

TIP

갱도• 석탄을 캐기 위해 뚫어놓은 길



"숨을 쉴 때마다 석탄가루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단다. 땀은 또 어찌나 많이 나는지, 장화를 벗어 흥건하게 고인 땀을 수시로 따라내야 할 정도였지. 속옷까지 흠뻑 젖어 일을 하다가도 두어 번씩 속옷을 벗어 땀을 짜내야 했단다. 비틀어 짜면 땀과 석탄가루가 뒤섞여 검은 물이 줄줄 흘렀지."


그땐 그랬지!

민호는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의 상처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 시절 수많은 광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태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날이었어요.



파란색 보자기에 싼 도시락



할아버지의 두 번째 특별한 보물은 파란색 보자기에 싸여 할아버지 방 서랍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여기저기 우그러지고 색이 바랜 양은 도시락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민호는 할아버지가 탄광소로 출근할 때, 늘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호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아빠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니까요.

한번 갱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고, 탄광소에서 점심을 준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출근할 때 꼭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 했답니다.

간식은커녕 먹을 거라곤 달랑 물 하나뿐이었고요. 도시락은 반찬이

변변치 않았지만 하루를 버티게 해 주는 유일한 식량이니 할아버지에게는 무척 소중했던 거죠.



"식탁이 어디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갱 안에 대충 자리 잡고 앉아서 먹는 거야. 탄가루가 날벌레 떼처럼 떠다니는 데다 컴컴해서 밥인지 반찬인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막 입에 집어넣는 거지. 거기다 찜질방같이 덥고 습해서 밥 먹는 일도 고역이었단다."

민호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도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마음이 복잡한 민호에게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호야, 할아버지 도시락이 왜 파란색 보자기에 싸여 있는지 아니?"

"할아버지가 파란색을 좋아했나요?"

"아니야. 파란색과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

란다. 석탄 캐는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해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 남편이 탄광 사고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도시락 보자기에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도시락에 밥을 담을 때도 주걱으로 네 번 퍼서 담지 않았어. 죽을 사(死)자라고 숫자 4도 피한 것이란다."



그때 그 시절 탄광촌의 별난 금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만지거나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탄광은 다른 직업보다 일이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겨난 금기 사항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금기 1 도시락밥은 주걱으로 네 번 퍼서 담지 않는다.

금기 2 남편이 출근하면 신발은 방 안쪽을 향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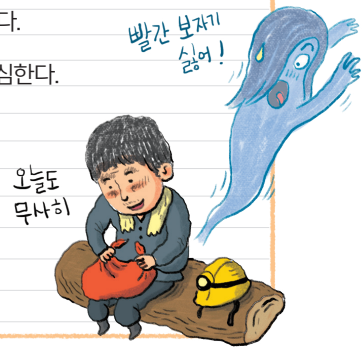
금기 3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날 하루는 더 조심한다.

금기 4 나쁜 꿈을 꾸면 출근하지 않는다.

금기 5 갱내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금기 6 갱내에서는 쥐를 잡지 않는다.

금기 7 도시락은 파란색이나 붉은색 보자기로 싼다.



쥐는 할아버지의 수호천사





"까악! 할아버지 저기 쥐, 쥐가 나타났어요."

마당 한구석에서 쥐를 발견한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빗자루를 살살 흔들어 쥐를 쫓아내고는 놀란 민호에게 물 한 컵을 주셨습니다.

"쥐가 그렇게 무섭니? 할아버지는 탄광 생활을 할 때 쥐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쥐가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데…."

"피, 쥐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와요?"

"아냐, 정말 쥐가 할아버지를 지켜줬다니까."

탄광에는 쥐가 많이 살았지만 아무도 쥐를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깊고 좁은데다 어두운 갱내에서 작업하다 보면, 탄광에





서는 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갱도를 만들거나 석탄을 캐면서 수맥•을 건드려 한꺼번에 물이 터지는 물통(출수)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갱이 무너지기도 하고,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많은 광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는 산업전사위령탑을 세워 해마다 10월 2일에 위령제를 지낸대요. 그분들을 추모하는 건 후손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현재 산업전사위령탑에는 강원 지역 탄광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광부 4,100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쥐들이 갱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쥐들은 사고가 일어날 조짐이 느껴지면 안전한 갱도 입구 쪽으로 우르르 도망간대요. 그걸 보고 광부들이 함께 대피했다고 해요.

또 쥐는 유해 가스에도 민감해서 쥐가 살고 있는 갱내는 가스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니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동물

TIP

수맥•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 줄기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것

인 셈이었죠. 그때서야 민호는 쥐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쥐야말로 할아버지를 지켜준 수호천사니까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쥐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갱에서는 도시락도 쥐와 나눠 먹었단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첫 숟가락을 떠서 갱 구석에 던진 다음 밥을 먹기 시작하지. 쥐들의 양식으로 남겨주는 거야."



무서운 탄광 재해

탄광은 작업장이 수백 미터 지하에 있고, 자연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게 되므로 갱 안과 밖에서 재해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요.

재해 1 유독 가스가 새어나오는 가스 사고

재해 2 지하수가 터지는 출수(물통) 사고

재해 3 갱이 무너지는 붕락 사고

재해 4 폭발로 일어난 화재 사고

재해 5 석탄 운반차가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사고





정말? 345시간 동안 갱 안에 갇혀 있었다고?

1982년 8월 20일 태백탄광에서 물이 터지는 출수 사고가 일어나 광부 4명이 지하 250미터 갱 안에 갇혔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갱에서 불어나는 지하수와 배고픔, 추위,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 15일 만에 무사히 구조되었는데, 광부들은 갱목으로 사용하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버텼다고 해요. 우리나라 탄광 매몰 사고 중 가장 오래 생존한 사고로 꼽힌답니다.

산업전사위령탑은 어디에?

재해 사고로 숨진 광부들을 추모하려고 17미터 높이로 세운 산업전사위령탑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대조봉 기슭 통리 고개에 있어요. 해마다 10월 2일이면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낸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할아버지를 찾아라!



할아버지가 간직한 네 번째 특별한 보물은 할아버지 지갑 속에 숨어 있어요. 광부 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사진이에요. 석탄가루로 범벅이 된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시커멓게 얼룩진 수건을 저마다 목에 하나씩 걸친 모습이었어요. 석탄가루로 분장한 듯 얼굴도 온통 검어 마치 다섯 쌍둥이처럼 보였어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퇴근길에 찍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새까만 얼굴에 눈과 이만 하얗게 반짝여 더 활짝 웃는 듯이 보였을지도 모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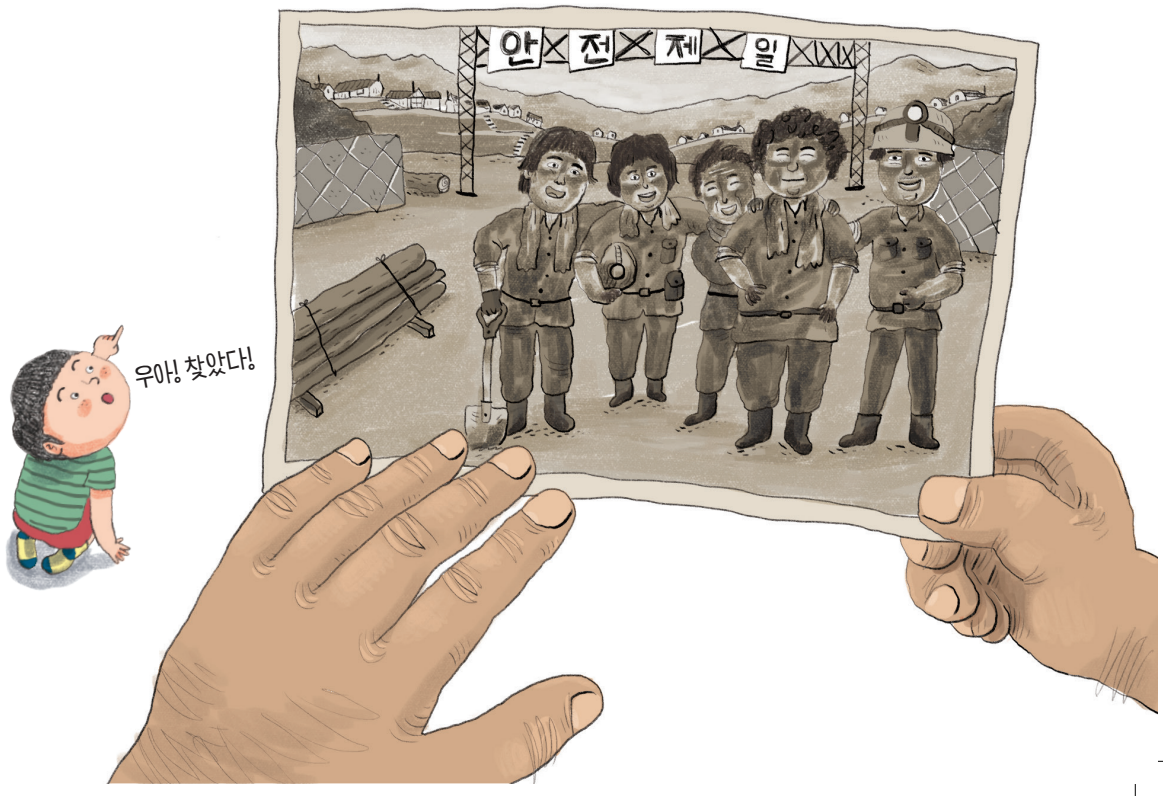
"이 사진에 정말 할아버지가 있다고요?"

민호는 사진을 뚫어져라 보았지만 누가 할아버지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 할아버지 모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두 얼굴이 너무 까매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짚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겸연쩍어하는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빙긋 웃었어요.

"네가 할아버지를 못 찾는 건 당연해. 탄광촌에서는 퇴근할 때쯤 비가 오면 광부 아내들이 우산을 들고 탄광소까지 마중 나오는데, 광부들 얼굴이 너무 까매서 자기 남편을 못 찾을 정도였거든."

"맙소사. 그럴 수가…."

"그때만 해도 탄광소에 목욕 시설이 없었단다.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퇴근했지. 온몸이 석탄가루 범벅인 채 집에 와서 씻거나 마을 공동 목욕탕에 가서 함께 씻었단다. 물도 귀하던 때라 목욕이라고 해봐야 시커



먼 얼룩만 겨우 씻어내는 정도였지."

"석탄가루가 잔뜩 묻었는데 세수도 못하고 퇴근했단 말이에요?"

"숯검정 얼굴에 검은 콧물이 흐르고, 목구멍에서 시커먼 가래가 나와도 누구 하나 욕하지 않았으니까."

"사진 속 다섯 분은 엄청 친했겠네요? 지금도 자주 만나세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할아버지만 빼고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석탄을 캐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퇴직한 뒤 진폐증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대요. 민호는 할아버지가 그 사진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진폐증이 뭐예요?

크기가 작은 석탄가루가 숨을 쉴 때,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간 뒤 폐세포에 쌓여 폐를 굳게 하는 병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주로 광부들이 탄광소에서 일하다가 걸리는 무서운 병이에요.





태백케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태백케어센터



우리나라에서 진폐증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곳은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이에요. 특히 태백병원은 진폐증 환자를 위해 태백케어센터도 세웠어요.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에 있는 태백케어센터는 우리나라 진폐증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전문 복지 시설이에요. 석탄 산업에 헌신하면서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광부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죠.

검은 하늘과 검은 시냇물



할아버지는 탄광촌이 갱 안도 검었지만 마을도 검은색투성이였다고 했어요. 탄광에서 캔 석탄을 저탄장•이나 기차역까지 운반하다 보니 도로가 검은 석탄 먼지로 뒤덮였대요.

지금이야 방진• 시설이 잘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탄가루가 온 동네를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한 날은 하늘까지 검게 보였다니 상상이 안 갔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그때 생각이 나는 듯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저탄장• 석탄을 저장하는 곳

방진•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음

"아이고 말도 마라. 흰옷을 입고 나가면 반나절도 안 되어 소매와 목깃이 광부들의 작



업복처럼 까매졌다니까. 학교는 어떻고. 밤새 탄가루가 날아들어 아침이면 늘 책상이 새카맣게 변해 있었지. 방을 닦고 한 시간만 지나도 바닥이 새카매졌단다."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탄가루가 자욱한 곳에서 공부하고 놀았겠네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서랍장 맨 위 칸에서 낡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오래되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풍경이 제법 근사하게 그려져 있었답니다.

"민호야, 네 아빠는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시냇물을 그릴 때면 늘 이렇게 까맣게 색칠했단다. 탄광촌 아이들은 새까만 시냇물만 보고 자라

서 시냇물 색깔이 원래 검은색인 줄 알았던 거야."

순간 민호는 지난 겨울방학에 아빠와 함께 갔던 철암탄광역사촌이 떠올랐어요. 건물 곳곳에 아직도 시커먼 석탄가루가 켜켜이 쌓여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생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이렇게라도 탄광촌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지요. 민호는 아빠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보고 있으니, 왠지 아빠의 어린 시절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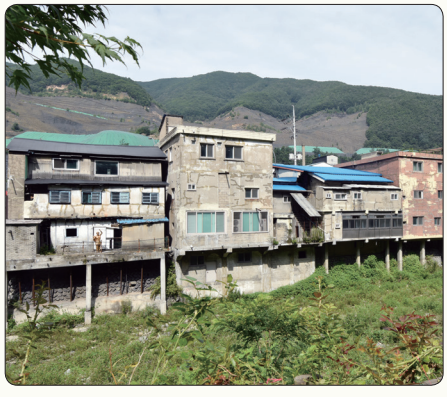
철암탄광역사촌과 까치발 건물

태백시 동태백로에 있는 철암탄광역사촌은 1970~80년대 탄광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생활사박물관입니다. 당시 탄광촌의 집 형태인 까치발 건물 열한 채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철암 하천 바닥에 철재나 목재 기둥을 지지대로 삼아 집을 지었어요. 지지대 모양이 까치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까치발 건물'이라고 불렀어요.

건물 절반은 땅에, 나머지 절반은 하천변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철암으로 몰려드는 광부가 늘어나면서 집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난 집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활발했던 시기를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철암탄광역사촌


▲철암탄광역사촌 까치발 건물

생각 놀이터 1

색칠하며 체험하는 탄광소 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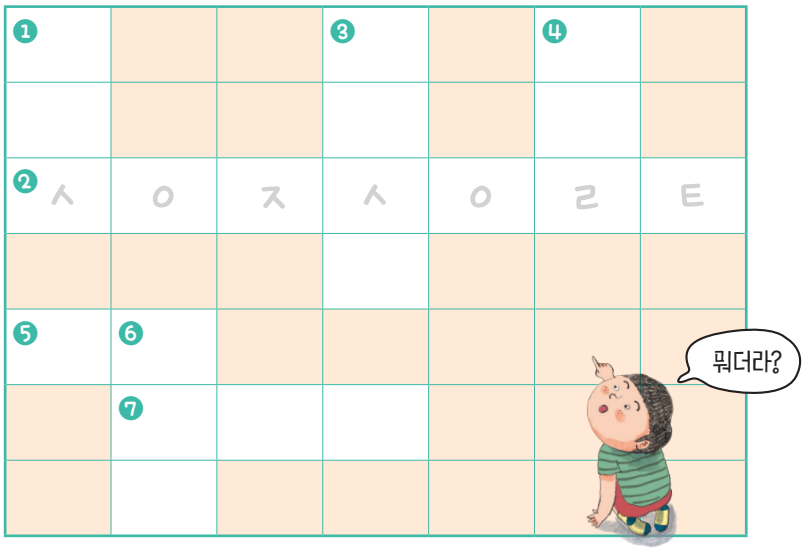
갱 안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색칠하며 나만의 갱도를 멋지게 그려 보세요.



생각 놀이터 2

함께해요! 요리조리 탄광 낱말 퍼즐

궁금했던 탄광촌 이야기, 민호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풀어 볼까요?



가로 낱말

② 재해 사고로 숨진 광부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탑. 태백시에 있는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2일에 위령제를 지내요.

⑤ 탄광소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 지하에 뚫어놓은 길

⑦ 내에서 흐르는 물. 민호 아빠는 초등학교 때까지 000이 검은색인 줄 알았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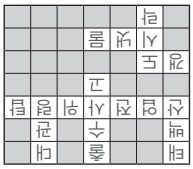
세로 낱말

① 강원도 태백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걸쳐 있는 산

③ 탄광 갱도에서 지하수가 터지는 사고. '물통사고'와 같은 말입니다.

④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사이에 있는 고개. '000 양떼목장'이 유명해요.

⑥ 밥을 담은 작은 그릇. 민호 할아버지의 000은 파란색 보자기에 싸여 있어요.



정답

가로 2. 산업전사위령탑 5. 갱도 7. 시냇물

세로 1. 태백산 3. 출수사고 4. 대관령 6. 도시락



할머니 별명은
왜 '검은 장미'일까?

• 세 번째 이야기 •

우리 할머니는 검은 장미



승재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태백시에 살고 계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소설로 쓰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할머니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검은 장미'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대요.
자, 지금부터 할머니의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머니 별명은 '검은 장미'



승재는 할머니와 함께 접시에 수북하게 쌓인 콩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콩 무더기에 섞여 있는 작은 돌과 콩 껍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승재는 이마에 송골송골 땀만 맺힐 뿐 도무지 속도가 나지 않았답니다.

"저도 돋보기를 써야겠어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돋보기를 써서 빨리 골라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승재 말에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승재야, 할머니 별명이 검은 장미란다."

"갑자기 웬 별명이에요? 그리고 검은 장미가 어디 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탄광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셨대요. 선탄부는 광부가 캔 석탄 속에서 돌, 철사, 나무덩이 같은 이물질을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석탄으로 가치가 있는 탄과 쓸모없는 폐석을 분리하는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탄광소 일은 작업 과정에서 많은 힘이 필요하다 보니 다른 직장과 달리 탄광소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탄광소를 금녀의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탄부예요. 할머니 별명이 검은 장미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광소에서는 탄광 사고로 남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서 더는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인을 선탄부로 뽑았대요. 남은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신 뒤부터 계속 선탄부로 일하셨대요.

"25년 동안 못 쓰는 돌을 골라냈으니, 이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단다."

승재는 할머니가 로봇처럼 능숙하게 콩을 골라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폐석이 뭐예요?

갱도를 뚫거나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나온 흙이나 돌 부스러기, 돌 조각 등을 폐석이라고 해요. 광부가 캐낸 석탄 중에는 폐석이 섞여 있어서 선탄부가 폐석을 골라내는 일을 했답니다.




재 해는 한순간
재해는 안평생
소
화
기


안전 제일
전화
소화기
컨베이어 벨트
화상 주의
소화기
정리 정돈
안전 제일
구급약

눈만 빼고 완전 무장하라



승재는 학교가 끝난 뒤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승재의 마스크를 받아들곤 이리저리 살펴보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선탄부로 일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약을 드십니다. 탄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선탄작업장 안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선탄장 안은 사람 얼굴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탄가루로 자욱했대요. 갱에서 캔 석탄들이 기다란 컨베이어 벨트•

를 타고 운반되어 오면 그 탄들을 빠른 속도로 뒤져가며 돌이나 나무덩이를 골라내는 일을 선탄부가 했어요.

TIP

컨베이어 벨트 물건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움직이는 벨트

석탄에서도 탄가루가 많이 나오지만, 계속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이에 두고 선탄부들이 길게 줄을 서서 쉬지 않고 탄을 뒤적이며 폐석을 골라냈기 때문에 탄가루가 더 심했답니다.

"지금처럼 좋은 마스크는 아니어도 방진 마스크를 쓰긴 썼지. 그것도 모자라 그 위에 또 한 번 마스크를 하고, 머리에도 이중 삼중으로 모자를 쓴 뒤, 눈만 남기고 온 얼굴을 수건으로 칭칭 감았단다. 장갑도 두 겹 세 겹으로 끼었지. 말 그대로 완전 무장을 했단다. 그렇게 해도 일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면 입에서 검은 침이 나올 정도였으니 탄가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지?"

여기서 잠깐!

선탄부와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선탄부처럼 큰 소리가 나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그 상태가 쌓이고 쌓여 점점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된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크게 들어도 소음성 난청이 생긴다고 하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의 선탄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우렁차게 돌아가는 소리, 탄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 탄을 이리저리 뒤적이는 소리가 합쳐져 선탄장 안은 요란한 소리로 가득했대요. 옆 사람이 고함을 쳐야 들릴 만큼 엄청 시끄러웠고요. 할머니는 탄광소에서 귀마개를 나눠줘 한결 편하게 일하셨지만, 대부분 선탄부는 귀마개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탄부 중에는 나중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승재는 할머니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왜 그렇게 애틋한 눈으로 보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선탄장에 잠깐만 머물러도 검은 탄가루가 온몸에 달라붙고 소음으로 귀가 한동안 멍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느껴졌거든요.

선탄부가 없다면 석탄도 없다!



"승재야, 우리 할머니 모시고 철암역두선탄장에 가 보자."

아빠는 할머니 덕분에 선탄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다는 승재 말에 차를 몰고 철암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승재는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철암천 건너편에 있는 전망대에서 철암역두선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한쪽에는 석탄가루가 켜켜이 쌓여 있고, 한쪽에는 폐석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 선탄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선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일하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단다. 할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네 아빠가 겨우 네 살이었거든.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이었지. 탄광촌에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탄광소에서 선탄부를 할 수 있게 해 준 덕분에 밥도 굶지 않고, 네 아빠와 고모들이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지."

승재는 할머니한테 선탄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선탄부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어요. 갱에서 막 캐낸 탄들은 그 상태로는 값어치가 없대요.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상품이 될 수 없는 거죠. 쓸모 있는 탄과 폐석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상품으로서 석탄이 탄생하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재빠르게 일하는 선탄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승재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선탄부는 광부에게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선탄부가 있어 태백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석탄 산업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철암역두선탄장이 궁금해요

철암역 뒤쪽 우금산 일대에 있으며 선탄 작업을 하던 곳이에요. 탄광에서 채굴한 탄을 다 모아 쓸모 있는 석탄과 폐석을 나누는 작업을 했죠.

1960~70년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답니다.



생각 놀이터 1

친구와 함께! 선탄부 할머니 깜짝 인터뷰

나는 기자가 되고 가까운 친구는 선탄부 할머니가 되어 인터뷰를 해 보세요.
(　　) 란에 이름을 넣고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질문 1 (　　) 기자

대답 1 (　　) 선탄부



질문 2 (　　) 기자

대답 2 (　　) 선탄부



생각 놀이터 2

선탄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선탄부 할머니께 감사 편지를 써 보세요.





윤지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태백아, 반가워! 석탄아, 고마워!



방학 때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윤지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태백이 정말 좋아져
영원히 태백에서 살고 싶어졌답니다.
빨리 커서 태백을 떠나 대도시에 가서 살고
싶었던 윤지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자, 윤지의 비밀스러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과 태백시



추전역에 도착하자 발 아래로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온 것 같다는 친구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선생님은 추전역 기념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란다. 855미터나 되니까 웬만한 산 높이와 맞먹지. 워낙 높은 곳에 있어서 한여름을 빼고는 일 년 내내 난로를 피워야 할 만큼 춥단다. 신기하지?"

윤지는 경치가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높고 추운 곳에 기차역을 만들었어요?"

"태백에서 캔 석탄을 빨리 대도시로 운송하려고 태백산맥을 관통하



는 태백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생긴 거야. 석탄 산업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태백선 기차역을 통해 한 달에 1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실어 날랐지. 저기 전시되어 있는 노란 기차가 바로 석탄을 싣고 달리던 광차•란다."

TIP

광차• 탄광에서 석탄이나 폐석 등을 실어 나르는 뚜껑 없는 차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태백은 석탄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석유와 가스를 본격적으로 연료로 사용하면서 석탄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0여 개나 되었던 태백의 탄광소가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폐광촌이 되었다고 해서 태백이라는 도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태백은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추전역도 관광 명소로 사랑받는 곳이에요.

윤지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 태백이 새롭게 보였어요. 석탄 도시로 활기찼던 모습, 폐광촌이 된 모습, 관광 도시로 변한 모습. 이 모두가 태백의 모습이고, 그 모습 하나하나마다 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태백선이 알고 싶다



▲추전역



▲추전역 기념비

충북 제천시의 제천역과 강원도 태백시의 백산역을 잇는 철도로 1975년 개통했답니다. 주로 태백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실어 나른 산업 철도입니다.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지어졌기 때문에 터널이 많고 추전역처럼 높은 곳에 만들어진 기차역이 많아요. 산업 철도로 출발한 태백선은 이제 눈꽃 열차 등이 달리는 관광 철도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탄광 도시 태백
철암탄


폐광촌 태백
관광도시 태백

춘천엔 닭갈비, 태백엔 물닭갈비

"언니는 맵다면서 왜 그렇게 빨리 먹는 거야?"

윤지는 콧잔등의 땀을 닦아가며 쉬지 않고 물닭갈비를 먹고 있는 언니에게 쏘아붙였어요. 윤지도 물닭갈비를 좋아하지만 뜨거워서 잘 못 먹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먹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어요.

엄마는 언니와 제 등을 토닥거리며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니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자라면 더 시켜줄 테니 천천히 먹어라, 얘들아."

언니는 엄마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



닭갈비를 연신 입에 넣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얼마 전 친구하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거긴 볶은 거더라고요. 맛은 있었지만 국물이 없어 아쉬웠어요. 저는 얼큰한 국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따라 물닭갈비가 더 맛있어요."

"맞아.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의 닭갈비는 찌개처럼 국물이 자작하단다. 그래서 물닭갈비라고 하는데, 태백의 탄광 산업과 관련이 깊어. 광부들은 몸속에 들어간 탄가루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즐겨 먹었거든. 닭고기에 채소와 육수를 가득 넣어 끓인 물닭갈비가 그 역할을 한 거지."

태백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연탄에 구워 먹는 음식점이 유난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래요.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탄을 캐던 광부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이제는 태백 지역 별미로 자리 잡은 거죠.



태백의 3대 먹거리

- **한우** 부드러워! 해발 650미터 이상 높은 태백 지역 초원에서 자란 한우는 육질이 부드러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먹거리예요.
- **물닭갈비**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탄가루를 뒤집어쓴 광부들이 즐겨 먹은 물닭갈비는 태백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 **태백산 나물밥** 고소하고 건강한 맛! 태백산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로 밥을 지어 양념장에 비벼 먹는 웰빙 음식이죠!

울창한 숲이 탄광소 덕분이라고?

윤지는 엄마와 함께 태백석탄박물관이 있는 태백산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검은 탄가루가 날릴 것만 같은 석탄박물관을 구경하고 초록빛 물감이 묻어날 것 같은 아름다운 태백산을 연달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차에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윤지는 감탄을 쏟아냈어요.

"우아, 엄마. 우리 가을에 또 와요. 단풍이 들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자연환경이 좋은 것은 모두 탄광소 덕분이란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도시와 시골 마을의 주변 산은 모두 민둥산이 되었을지도 몰라."

"정말요? 석탄과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대부분 나무를 베어 다 밥을 하고, 방을 따뜻하게 덥혔다고 합니다.

나무(임산 자원)말고는 연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무를 많이 베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점점 헐벗은 민둥산이 되어 가니 홍수나 가뭄 피해도 심해졌어요.

"연료로 쓰려고 나무를 너무 많이 베었던 거야. 숲이 더 훼손되면 안 되겠다 싶어 나라에서 나서서 에너지원을 바꾸기 시작했단다. 그게 바로 석탄이었지.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석탄 산업이 아주 번성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숲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석탄이 없었으면 계속 나무를 베었겠네요?"

"그렇지. 석탄으로 연탄을 만들었거든. 밥이랑 난방을 연탄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나무를 더는 벨 필요가 없었지."

광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석탄을 많이 생산했기에 연탄 같은 연료를 만들 수 있었대요. 석유나 가스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연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 연료였다고 하니 석탄은 정말 귀한 존재였겠죠.

무엇보다 수많은 광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석탄 산업도, 숲이 우거진 지금의 아름다운 태백도 없었을 거예요. 윤지는 자동차 안에서 숲이 우거진 태백의 경치를 보며 다짐했어요.

'태백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태백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거야. 광부 할아버지, 선탄부 할머니, 감사합니다! 태백아, 반가워! 석탄아, 고마워!'





태백산국립공원이 궁금해요.

강원도 태백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걸쳐 있는 산이에요. 198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22번째 국립공원이 되었어요. 높이는 1,566.7미터에 달하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과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 문화 자원이 많아요. 야생화 군락지와 열목어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 경관도 멋지답니다.

태백석탄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석탄이 어떻게 생기는지, 석탄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부터 태백 지역 탄광 관련 자료까지 모두 모아 놓은 곳이에요. 위험하고 힘든 작업 환경에서도 산업 역군으로 열심히 석탄을 캔 광부들의 작업 모습과 생활을 엿볼 수 있고, 탄광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태백산국립공원



▲태백석탄박물관

생각 놀이터 1

10년 뒤 개봉할 타임캡슐! '태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

더 멋지고 아름다운 태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나만의 타임캡슐을 만들어 넣어 두었다가 10년 뒤 얼마큼 실천했는지 열어 보세요.

1.

2.

3.

생각 놀이터 2

10년 뒤 태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10년 뒤 태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년 뒤 태백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광부 할아버지, 선탄부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억 년 전 바다였던 신비로운 태백,
탄광 도시로 이름을 날리며 활기찼던 태백,
에너지 산업 변화로 폐광촌이 된 태백,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다시 태어난 태백.
태백은 이렇게 변해 왔으며, 그 모습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무엇보다 힘든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 오신 수많은 광부의 땀과 노력은
더없이 값지고요.
우리나라 산업화와 태백 발전의 일등공신인
광부 할아버지와 선탄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 말씀을 주신 광부 할아버지
네 분을 소개합니다.

양우석 할아버지

1963~1982년 탄광에서 근무



"탄광촌 아이들은 새까만
시냇물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시냇물이 원래 검은색인 줄 알았죠.
학교 책상도 밤새 날아든
탄가루 때문에 매일 아침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요."

박영호 할아버지

1971~1991년 탄광에서 근무



"갱 안에서 물이 터지거나
갱이 무너져 같이 일하던 동료를
잃었을 때는 슬프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도 컸죠."

금봉연 할아버지

1962~1991년 탄광에서 근무





"퇴근할 때쯤 비가 오면
광부 아내들이 우산을 들고
탄광소까지 마중 나오는데, 광부들이
모두 눈만 빼고 온통 얼굴이 까매서
자기 남편을 못 찾을 정도였어요."

김창록 할아버지

1970~1998년 탄광에서 근무



"갱 안은 한여름보다 더 더워서
일하다가도 두어 번씩 속옷을 벗어
땀을 짜내야 했어요. 비틀어 짜면
땀과 석탄가루가 뒤섞여 검은 물이
줄줄 흘렀죠."









태백아, 반가워!
석탄아, 고마워!

발행처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주소	(26043)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778
전화	033-550-0000
팩스	033-552-7836
홈페이지	http://taebaek.knps.or.kr
글	김미경
그림	이창섭
사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교정·교열	이상희
감수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태백석탄박물관
디자인	디자인서가 02-735-1711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